

■ “노동조합 조직률의 현황과 추세”(김정우 책임연구원)

- 2004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음.
  -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전체의 노조가입률은 12.4%였으나 이 중 상용직(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22.5%인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노조가입률은 각각 1.5%, 0.4%에 그치고 있음.
- 한국은 노조조직률 뿐 아니라 협약적용률도 약 10% 정도로 매우 낮아, 노조의 사회전체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
  - ※ OECD에 따르면, 한국의 협약적용률은 노조조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2000년 기준 10%인 반면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산업별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유럽 국가들의 협약적용률은 70~90%에 달하고 있음.
- 노동조합의 대표성 논란을 해소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산별교섭의 확장과 함께 연대임금정책의 도입이 필요함.

문의처 :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김용현 연구원

Tel : 783-7155 E-mail : yhk08@kli.re.kr

\*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http://www.kli.re.kr>)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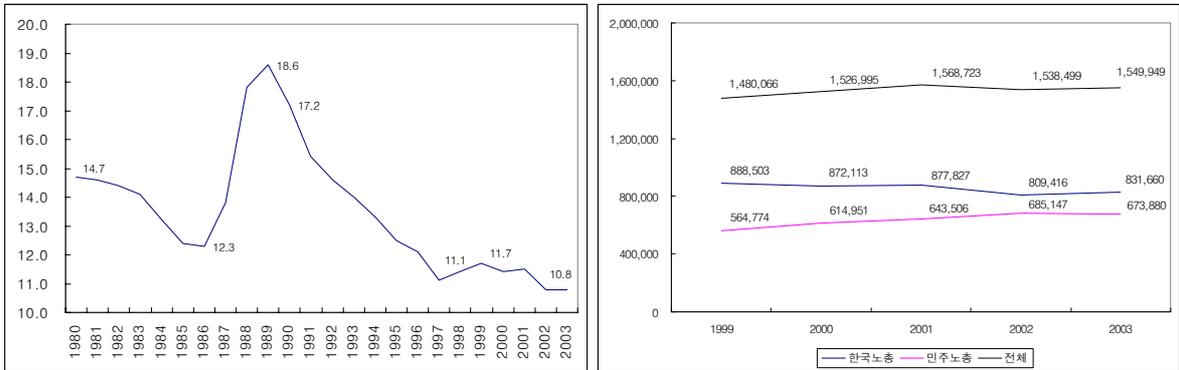
## 노동조합 조직률의 현황과 추세

담당자	김정우 책임연구원
전화	02) 783-7155

- 2003년 현재 우리나라의 노조조직률은 10.8%에 그치고 있음.
-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6,257개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조합원의 수는 1,549,949명으로 임금근로자를 전체 조직대상으로 계산한 노조조직률은 10.8%임.
- 이는 영국(29.1%), 미국(12.9%), 일본(19.6%) 등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지배적인 나라들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임.
- 단지 조직률만 낮은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모별, 고용형태별, 산업별 편중이 심해 노조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발생하고 있음.
- 조합원규모별로 보면 조합원의 수가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의 수는 174개로 전체 노조의 2.8%이나 이들 조합원규모가 1,000명 이상인 노조에 가입된 조합원수는 955,092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61.6%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임금근로자 전체의 노동조합가입률은 12.4%였지만 이 중 상용직(정규직)의 노조가입률은 22.5%인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의 노조가입률은 각각 1.5%, 0.4%에 그치고 있음.
- 산업별로는 운수업의 노조가입률이 42.3%로 가장 높았고 금융 및 보험업이 29.8%, 제조업이 17.4%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비율을 보인 반면, 사업서비스업, 기타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의 노조가입률은 각각 5.7%, 5.1%로 상대적으로 낮음.
- 노조조직률은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하여 2002년과 2003년에는 10.8%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989년의 18.6%를 정점으로 1997년(11.1%)까지 꾸준히 하락한 후 다소간의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2002년과 2003년에는 1965년 이래 최저치인 10.8%를 기록
- 조합원수 자체는 미미하게나마 증가했으나 임금근로자의 증가폭을 따라잡지 못해 조직률의 하락이 발생하는 것이며, 조합원수의 증가도 기존조합의 상급단체 변경에 의한 것이지 신규조합원의 증가에 의한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추정됨(2002년을 제외하면 한국노총의 조합원수가 줄어들때마다 민주노총의 조합원수가 증가함).

(그림 1) 노조조직률 변동 및 총연맹별 노동조합원수 추이

(단위 : %, 명)



주1) : 노조조직률=(조합원수÷임금근로자)×100

주2) : 총연맹에 가입하지 않는 노동조합도 있으므로 양노총 조합원수의 합이 전체와 일치하지는 않음.

자료 :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년도.

○ 한국의 협약적용률은 노조조직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우 낮아, 노동조합의 사회 전체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음.

- 이는 기업별노조의 형태로 조직되어 있는 한국노동조합의 조직형식 때문에 협약적용률이 노조조직률을 크게 상회하기 어려운 조건을 반영하는 것인데, 산별노조로 조직되어 있는 유럽각국의 협약적용률은 대부분 70~90% 수준에 달하고 있음.

〈표 1〉 OECD 주요국가의 노조조직률과 협약적용률

(단위 : %)

	노조조직률			협약적용률		
	1980	1990	2000	1980	1990	2000
호 주	48	40	25	80+	80+	80+
프랑스	18	10	10	80+	90+	90+
독 일	35	31	25	80+	80+	68+
일 본	31	25	22	25+	20+	15+
한 국	15	17	11	15+	20+	10+
스웨덴	80	80	79	80+	80+	90+
영 국	51	39	31	70+	40+	30+
미 국	22	15	13	26	18	14

주 : 한국의 협약적용률은 교섭단위에 속한 노동자의 약 20%가 조합원이 아니라는 가정 하에 추정된 값임.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2004, p.145.

○ 앞으로 노조대표성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노조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단기적으로 산별교섭의 영역과 범위를 확대하여 협약적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함과 더불어 중소기업 및 저임금 노동자 등 미조직노동자와의 임금격차 축소를 지향하는 연대임금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의 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